



제107호 / '16.6.3(금)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2,050원 인상!
취업규칙 개악 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
일반해고 금지!
조합활동시간 보장!

□발행처: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일반해고 도입할 사업장 있다?

일반해고 금지 요구안에 대해서도 회사별 입장 차 있어

중앙교섭 불참한 보쉬, 강력히 경고

2일(목) 7차 지부교섭은 충주에 있는 KDK에서 열렸다. KDK 하연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 매출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노측에서도 사측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의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측 교섭위원들이 매번 교섭 인사말을 할 때마다 경제 위기 타령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김정태 지부장은 “경제가 어려운 것 우리도 안다. 노동자들이 지출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재벌 곳간엔 760조 원이 쌓여있고, 재벌 아닌 기업들도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그걸 풀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또 중앙교섭이 사측 불참으로 결렬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중앙교섭 합의 없이는 지부, 지회교섭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월 31일 8차 중앙교섭에 대전충북지역 사용자 등 5명이 불참하여 성원이 미달하게 되자 사용자측 교섭위원 전원이 교섭에 아예 불참하는 사태를 빚었다. 올해 대전충북지역 사용자 대표는 보쉬에서 맡고 있다. 보쉬는 이날 중앙교섭에 불참했다.

일반해고 도입하겠단 회사 어디냐?

사측 교섭위원들은 제시안 마련을 위해 두 번이나 모여 회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가 커서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부 교섭위원은 크게 실망했다. 지부 요

구안 중에 회사가 금액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것은 거의 없다. 임금 요구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합활동이나 일반해고 금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조율이 안된다는 것은 일반해고를 도입하려는 사업장이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일반해고 금지 요구안은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만 하면 되는 요구안이다. 그것에 대해 의견이 조율이 안된다면 어떤 사업장은 일반해고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사측에서 의견이 조율되는 요구안에 대해서라도 제시안을 내야 논의가 되고, 입장 차이를 좁혀갈 수 있다. 그래야 교섭이 진전이 있는 것이다. 조율이 안된다고 아무런 의견 제시도 없고 안도 내지 않으면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겠냐? 지부 교섭위원들은 차기 교섭 때까지 제시안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

매주 교섭 날, 재벌개혁 실천단 활동 병행

한편, 지부 교섭위원들은 교섭 전 충주 시내에서 재벌개혁 실천단 활동을 펼쳤다. 경제위기 주범이면서도 모든 이윤을 독식하는 재벌의 문제를 지적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교섭위원들은 매주 목요일 교섭이 열리는 날에 재벌개혁 실천단 활동을 병행기로 했다.

다음 주는 6/9(목) 11시 한온시스템에서 8차 교섭이 열린다. 재벌개혁 실천단은 교섭 후 신탄진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7차 교섭 속기록

중앙 타결없이 지부, 지회 타결 없다!

사 : 올해는 예년보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기업이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인데 상당히 저하되어있다. 올해는 노사가 서로 양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의견이 좁혀지면 좋겠다. 사측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노측에서도 같이 사측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의가 되면 좋겠다.

노 : 엇그제 중앙교섭이 사용자측 불참으로 결렬됐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합의 없이 지부교섭 합의 없고, 지부교섭 합의 없이 지회교섭 합의 없다. 올해 반드시 지킬 것이다. 위원장님도 반드시 지킨다고 했다. 서로 교섭이 원만히 되도록 사용자들도 노력해줬으면 한다. 매번 하는 말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도 안다. 그 경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실질적인 소비가 안되는게 가장 큰 원인이다. 노동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벌 곳간에는 760조가 쌓여있다. 재벌 아닌 기업들도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이제 그걸 풀어야 한다. 예전의 방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면 경제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까지 요구안 설명했으니 오늘 사측 제시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시안 제출 바란다.

사 : 안을 제출하기 위해 두 번 정도 모여서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조합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회사별로 차이가 컸다. 조율을 못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모여서 나름대로 안을 준비해서 다음 교섭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노 : 우리 요구안 중 돈 들어가는 안이 없다. 조합활동요구, 일반해고 금지 요구이다. 여기에 회사별 의견 격차가 있다면 말이 안된다. 일반해고를 도입하려는 사용자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그런 사용자가 있나?

사 : 회사 중에는 조합이 요구한 상당 부분을 이미 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이미 시행 중인 회사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려운 회사도 있다.

노 : 일단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나중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안을 못받겠다는 건, 일반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 :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조율이 힘들었다. 일반해고야 개별회사는 다 반대할 수도 있다.

노 : 의견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진전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정말 안되는 부분은 또 조정을 해야되는 것이다. 오늘 일반해고 금지는 수용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일반해고를 도입한다는 사용자가 있는건지 궁금하다.

사용자가 다음주 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겠다. 요구안 중에 이견 없는 사안부터 제시하면 접근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교섭에서 충분히 의견 들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 잘 해달라. 다음 주에 의견 받겠다. 차기 교섭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하자.

사회 : 차기 교섭은 6/9(목) 11시 한은시스템에서 진행 하겠다.